

전북, 농가당 농업소득 전국 2위

전국 평균 보다 12% 높고 전년보다 14% 증가... 2015년 7위에서 2016년 2위로 올라

삼각농정과 재배받는 농업실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농가당 농업소득이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당 농업소득은 1,122만5,000원으로 9개 도 중 2015년 7위에서 2016년 2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

농가당 농업소득 1,122만5,000원은 전국평균보다 12%가 많고, 전년도 농업소득보다 14%가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가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농업총수입은 채소, 과수분야에서 증가, 농업경영비는 사료비, 임차료 등이 감소해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수입은 3,179만원으로 전국평균 3,127만원보다 52만원이 많고, 전년도 농업총수입 3,253만원보다 2.3% 감소했지만, 2015년 전국 6위에서 2016년에는 전국 3위로 크게 순위가 올랐다.

농업총수입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요인은 시설원예와 과수면적이 증가하고, 배추, 무, 양파 등 채소가격 상승으로 농업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경영비는 2,057만원으로 전국평균 2,121만원보다 64만원이 적고, 전년도 농업경영비 2,268만원보다 9.3% 감소했다.



기금운용본부 개청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개청식이 26일 전주혁신도시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농업경영비 감소 요인은 사료비 감소가 큰데 이는 농후사료가격이 2015년 대비 5.9%(비육우사료기준) 정도 인하되고, 조사료 생산량이 19% 증가하여 절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과는 삼각농정 위원회에서

논의된 쌀 대체작목 육성, 조사료 확보 대책, 시설 현대화 등의 시책이 정책사업으로 반영됐고, 삼각농정 민간 위원들을 통해 농업현장에 논의 결과가 접목돼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삼각농

정 결과가 차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농생명이 특화된 도가 타 지역과 차별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이란 흐름에 앞장서 농생명 수도로 우뚝 서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창업기업 투자·판로 한꺼번에 해결

도창조경제혁신센터, 회계·투자교육, 아임쇼핑 입점설명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에서 전북판도 운용사 IT투자파트너스, 공영홍소평인 아임쇼핑과 공동으로 도내 창업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투자교육 및 아임쇼핑 입점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공고를 통해 모집한 지역의 유망 벤처·중소기업 35개사가 참여해 공영홍소평인 아임쇼핑 입점전략과 창업기업 최고의 애로사항인 회계와 투자유치전략 등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의

유망 벤처·중소기업들이 공영홍소평에 안정적으로 입점하고, 조성된 펀드를 조기 지원받아 기업 경영과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창조센터는 기존 효성의 탄소성장펀드 200억, 성장사다리펀드 100억, 전북효성SI성장펀드 200억 등 총 500억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개 기업이 총 134억의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인재용 기자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도 홍보관 운영

주요 뿌리기업 5개사 제품 전시

전북도는 26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 도내 뿌리기업의 제품과 기술력 등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공동으로 전북도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한국전산업전시회에서 인증받은 전시회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뿌리산업 전문 전시회이며, 국

제뿌리산업포럼, 수출상담회 및 채용박람회가 동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7개국 126개사가 참여해 300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에는 23개국 4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회원사와 공동부스를 운영, 주요 뿌리기업 5개사의 제품 전시와 함께 전북도 뿌리산업 육성정책 및 전북뿌리산업연합회 활동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AI 발생시군 업무담당공무원 재입식 교육

전북도는 AI 발생농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및 효율적인 재입식 추진을 위해 발생 시군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방역상황실에서 검역본부와 합동 재입식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김제 금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AIV가 최초 발생 후 지난 2일 익산 용안 토종닭 마지막 발생까지 47호에서 발생

해 20개의 방역대가 운영됐으나 현재 1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지역 4개의 포도상 방역대만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시군 담당자 방역교육의 주요 내용은 발생농장의 4단계 재입식 절차 준수사항 점검과 해당 농장 방역 준수사항 이행 및 시설 설치여부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인재용 기자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전북도 선관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

다.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각 지역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빅데이터 활용 '5개년 계획' 수립

오늘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2018년~2022년 계획 10월까지 추진

전북도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선다.

기본계획 수립은 빅데이터 및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7일 도청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 및 관계부서가 참석해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영역은 빅데이터 활용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및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을 통해 전북형 빅데이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전략과제 발굴과 합

계 데이터 관리방안, 인력양성,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제는 2018년부터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업과제 추진, 도청 내 빅데이터 활용문화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군 등과 '빅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5월 중 1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앙의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에도 참여해 빅데이터 협업사업 발굴, 데이

터 활용을 위해 교류하고 있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는 도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취약계층의 지역별 실직현황과 도내 사업장 분포도를 분석, 일자리 매칭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빅데이터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도 다양한 분야의 과제 발굴, 자문 등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웹 소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를 매월 추진해 빅데이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5월부터는 실국을 순회하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도정활동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